

로맨틱하게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기 - 임다울

이미지와 몸에 대해서 작가와 한창 이야기하던 중 문득 그가 시대의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로맨틱한 방법으로.

전시장에 놓인 것은 빙의된 이미지를 걸쳐 입은 몸, 이미지와 본질을 합체한 것과 같은 그림, 슈타이얼의 이미지⁷인 동시에 더 강렬한 스크린이라는 견고한 몸을 획득하고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우뚝 선 뼈와 살이다. 앞면의 이미지와 뒷면의 이미지는 둘 사이 위치의 격차 때문에 나의 움직임을 따라 그 실루엣들이 움직이며 망막에 닿는 이미지를 변화시킨다. 그림은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작가는 전시 동안 이 모든 이미지를 한 번 갈아입힘으로써 또 다른 장면을 만들어 낸다.⁸ 이미지들의 겹침과 움직임, 이어짐과 비껴감이 나의 시각과 생각 안에서 작동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내 몸과 의식이 이미지 뒤로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은 다분히 분열적이다.

하지만 이내 나는 이미지의 안쪽, 작가가 애써 만든 이미지의 뼈와 살을 만난다. 그리고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작가의 몸을 바라본다. 그는 이미지의 지퍼를 열어 그것을 벗겨내고, 새로운 이미지로 갈아입힌다. 인간이 수동으로 바꾸는 화면이라니! 의미를 얻지 않기 위해 애를 쓰는 가벼운 이미지들에 비해 작가가 들이는 노력은 상당하다. AI 챗봇을 위해 정보에 라벨링 하는 하는 케냐의 노동자들을 다뤘던 뉴스가 떠오르며 헛웃음이 난다. 느닷없는 작가의 등장이 구원이었던가, 절망이었던가? 이 모든 정황이 “모든 것이 역사가 되었기에 더 이상 역사를 믿을 수 없다”던 보드리야르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미 한참 전에 인간의 권리가 세계적인 하찮은 제품처럼 전 세계로 유통될 것이라고 예견했다.⁹ 상상컨대,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중 몇몇은 여전히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힘겹게 곱씹으며, 그다음 챕터를 염려하는 것을 사치로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어렴풋이 그의 예견이 잘 들어맞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는다. ‘권리’라는 말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잃은 채 가볍게 유통되며 소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의 분쟁과 재난 속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든다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함정을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찝찝함을 지워낼 수가 없다. 허나 그저, 인간 세계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에서 벗어난 지 이미 한참이 지난, 범람하고 있는 정보 사이에 허우적거린다. 저 손이 진짜 나를 향해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그래도 진실이지는 않을까, 고민하며 무기력하게 스크린 앞에 앉아 만들어진 진실을 바라본다. (아니 그저, 본다)

작품에 대한 과대한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들을 통해 나는 인간 세계의 종말이 떠오른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기호들을 뚫고 그 안에 있는 몸을 보는 것은 가능한가, 정보가 더 이상 정보로 기능하지 못할 때, 내 눈앞에 놓인 당신, 나의 신체와 당신의 신체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나는 당신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⁷ 빈곤한 이미지, 히토 슈타이얼 『스크린의 추방자들』(2018,) 참조

⁸ 작가는 전시기간 중 처음에 설치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다른 이미지로 갈아입히기로 했다. 당신이 전시 초반에 방문했다면 처음의 이미지를, 후반에 왔다면 나중의 이미지를 보고 있을 것이다

⁹ 장 보드리야르, 『사라짐에 대하여』(민음사, 2012)